

#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 익산시, 특례보증 5천만원까지 대출 확대 예정... 연 4%까지 5년간 이자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 부담은 낮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2억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개인신용평점 585~839점(구 신용등급 4~7등급)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특별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최대 4%의 이자를 5년간 이차보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복익산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개인신용평점 709점 이하(구 신용등급 7~10등급)인 지역 소상공인에 2천만원 이내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 2일 기준 3억 9천 1백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시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소상공인별 3천만원에서 5천만원(기보증금액 포함), 출연금 예산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산=이특훈 기자



##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 개장

###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공룡테마공원에 조성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친 아이들과 시민들을 위해 도내 대표 관광지인 보석박물관에 야외 놀이체험 시설인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를 개장했다.

시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공룡테마공원에 1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를 조성했으며 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는 관광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16미터 높이의 슬라이드타워 전망대와 원형형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최대 22미터 높이의 드롭형 슬라이드와 나선형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익산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슬라이드타워 주변에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룡테마놀이터로 더불어, 정글짐, 짚라인 등 10종의 놀이시설과 보석박물관 주변에

는 합벽정, 왕궁저수지, 수변 데크길, 전망대, 수변정(정자), 가족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물레길도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현장 발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키 140cm 이상, 몸무게 30kg 이상만 체험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슬라이드타워(전망대)는 1회당 2,000원, 슬라이드(드롭형, 나선형)는 3,000원이다. 단, 익산시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2022~2023년 익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내 랜드마크인 보석박물관의 다양한 시설들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군산시, 노인복지 정책 펼쳐

군산시는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만 1,190(2월말 기준)명으로 군산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민선7기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노인회관 등 복지공간 신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안노인복지관은 동부권 노인들의 복지공간으로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와 숙원사업인 노인들의 여가·문화·복지공간 노인회관 건립사업 역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의 가장 밀접한 복지공간인 경로당은 2021년 11개소, 올해 9개소 신

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는 신속하고 쾌적한 리모델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공간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22년 예산액은 378억으로 작년 대비 807명이 증가한 9,145명이 읍면동 및 1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만족하는 일자리 제공은 물론 어르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금도 매월(최대 30만 7,500원), 노인인구의 75.2%에 해당하는 4만여명에게 지원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급대상자를 늘려갈 예정이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족 및 이웃의 만남이 제한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및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47명의 생활지원사가 3,937명의 어르신들에게 주 1~2회 안부확인하고 있으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현재 427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응급사에는 소방서와 연계해 응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으며 올해 800대를 추가 설치 예정이다. 또한 노노케어 노인일자리로 700명 어르신들 안위를 살피고 있다.

/군산=이특훈 기자

## 익산시, 판로 걱정 없는 '기업 맞춤형' 쌀 생산

익산시는 기업 맞춤형 쌀 생산을 3월부터 본격 돌입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선다.

시는 종자 공급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매뉴얼에 따라 생산해내는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생산된 쌀은 대기업에 즉석밥 원료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

총 3,100ha 면적이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2,350ha,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100ha, 고품질 탐마루 쌀 생산단지 650ha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익산시는 CJ 햇반, 하림 즉석밥, 본아이에프(본죽, 본도시락) 등에 원료곡 24,400여톤을 공급해 4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가죽화, 맛별이, 1인 가구 증가, 간편한 끼니 해결 등의 식생활로 국

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즉석조리식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시는 쌀 소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즉석밥 소비 증가가 떠오르는 트렌드에 맞춰 쌀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엄격한 현장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거쳐 지난달 25일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53개 단지 1,886개 농가를 선정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 익산시, 청년 취업지원 '드림카드' 발행

익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드림카드' 대상자를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익산시가 도입한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6

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포인트로 지급된다.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재 구입비, 면접료 등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접적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뿐 아니라 구직활동을 위한 식비, 교통비 등 간접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이특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 유천도서관' 시범 운영 돌입

익산 지역 유일의 생태환경특화도서관인 유천도서관이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유천도서관은 유아부터 성인 독자에 이르기까지 15,000권의 양질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유천도서관은 인근에 위치한 유천생태습지공원과 연계한 생태문화프로그램과 생태관련 특화주제 도서 코너를 마련하는 등 특색있는 도서 자료를 제공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휴식과 문화, 독서와 힐링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이특훈 기자

### 군산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2년 연속 '우수'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산은 96.45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88.68)대비 높은 수준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에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평가했다.

시는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데이터를 발굴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 데이터 제거를 통해 데이터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공하며,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